희망을 찾아서

"통합 교육과 개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양수 씨 (미국 워싱턴 주 재활공학 전문요원)

20대에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은 워싱턴 주에서 시각장애인 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는 조양수 씨(48). 그는 장애인들이 직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환경 요건을 적절히 보완하고, 설계하고, 때로는 제품으로까지 만들어내는 재활공학 전문요원이다.

녹내장 진행으로 서서히 실명하게 된 그는 한국에서 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재활공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라파엘집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보았는데, 이론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식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 미국의 헬렌켈러가 졸업한 퍼킨스맹학교에 인턴십으로 가 정보공학과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는 재활공학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에만 있으면 편안하고, 아는 사람들끼리의 친근감은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좁아져 덩달아 사회로 나아갈 폭도 좁아지게 된다는 것. 다만 장애인도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또 한가지 한국의 문제점은 미흡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흥미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개개인에 접근하는 직업 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 직업을 갖는 데 자유로워야 하고, 만일 시각장애인인데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를 논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조양수씨. 그의 바람대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시각장애인 내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 정도의 직업 환경이 하루빨리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에스컬레이터를 안내할 때

올라가는 곳인지 내려가는 곳인지를 설명해주고 오른쪽 손잡이를 잡도록 해 주세요.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8호 통권 97호

2008년 8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제일모직배 탁구대회 경기하는 모습
하단 : 강원도 홍천에서의 래프팅 교실
우상단 : 순회재활교육 모습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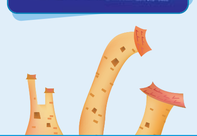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차별과 편견 없는,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자.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건물과 시설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친장애인 건물 인증제'를 7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가 추진해오던 '장애물 없는 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늦게나마 정부 의지가 표명되어 다행입니다.

그동안 도시 환경에서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부분적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혜와 배려에 기반한 특별대우로서의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과 배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무장애'라는 개념은 시혜와 배려로서의 특별대우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분리와 배제를 전제로 한 편의시설의 설치에서 처음부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장벽의 제거, 더 나아가 차별과 편견이 배제된 모두를 위한 도시 환경의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장애 대중들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